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음 1월 7일) 제19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해결 총력전

송하진 지사, 기재부 방문  
금융지원 등 후속 조치 촉구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 발빠른 조치에  
“현실적인 문제 풀어야”

송하진 도시사를 비롯한 전북도 지휘부가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는 물론 군산지역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종합적인 중앙정부 지원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 문턱을 비쁘게 뚫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지원단 연석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군산공장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해 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21일 기획재정부 방문해 고형권 제1차관을 만나 1만3천여 근로자들의 실직 대비 대책 뿐만 아니라 군산 국가산업단지 대다수 입주해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금 면제 등 가장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사태에서 보듯이 군산지역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들고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금융지원 등 기재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되고 전북도와 군산시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 정부차원에서 군산경제 살리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 한 바 있다.

이어 곧바로 다음날인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즉각

조치가 이뤄져 전북도에서는 일단 가장 우선적 건의사항을 해결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정부 차원의 발빠른 조치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재부부터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들을 풀어 가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이날 오전 기재부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쳐 군산지역은 사실상 재난 지역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특별교부세 지원 등 행안부 차원의 모든 지원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서 현실화 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도 이에 앞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을 잇따라 만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군산지역 실태를 면밀히 전하고 해당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즉각 추진을 부탁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가 21일 익산시 원불교 중앙종도훈련원 대각전에서 원불교 초기경전의 전주한지복본 기증식을 가졌다.

## 한권 남은 원불교 초기경전, 전주한지로 복본

시, 원불교 중앙종도훈련원 대각전서 복본 기증  
향후 법위증·종교서적 등 전주한지로 제작키로

전주시가 단 한 권만 남아있던 원불교의 초기경전을 전주한지를 활용해 원본과 똑같은 복본본을 만들었다. 이는 지난 해 바티칸교황청이 소장중인 편지 기록물에 이어 중요 종교 기록물이 전주한지로 복본된 두 번째 사례로 향후 중요 기록물 보존을 위한 활동이 늘어나 전주한지 세계화 촉진은 물론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21일 익산시 원불교 중앙종도훈련원 대각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경산 종법사와 교정원장, 감찰원장, 전국 교구장 등 원불교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 초기경전의 전주한지복본 기증식 및 전주한지로 특별 제작된 원불교 교주 소재산 대중사의 친필 한지특자 전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전주한지를 활용해 제작된 원불교 초기경전을 원불교 측에 기증했다. ‘원불교 초기경전’은 국내 4대 종단 중 하

나인 원불교의 중요 고서로 지난 1943년(원기 28년) 원불교 익산성지 ‘정하원(익산시 신흥 소재)’에서 원불교 창시자인 박종빈 소재산 대종사가 저술한 서적이다. 이 서적은 원불교의 기본 교리를 밝힌 기본 경전으로 원불교도에게는 교과서이자 성서, 법전, 코란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김 시장은 전주전통한지의 유구한 역사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뛰어난 보존성, 전주한지 전통계승에 대한 전주시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범 종교계에서도 전주전통한지 수요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원불교 측은 이번 원불교 초기경전 복본화 및 중요 고서 한지 제작을 시작으로 향후 법위증과 원불교 관련 종교 서적 등을 전주한지 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한 국제연합(UN)전문기구인 유네스코와 전주한지를 활용한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나서기로 하는 LOI(의향

서)를 체결 △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 △재외공관 한지 리모델링 사업 전개 △조선시대 의규장각 의궤 중 가장 화려한 영조 정순왕후 기계 반차도 행렬 한지공예 재현 등 전주한지의 전통보존과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힘써왔다.

여기에 원불교 중요 고서도 전주한지로 다시 태어나면서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가 향후 국내 중요 종교 기록물 등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복원하거나 복본하는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전주한지 수요 창출로 산업화를 이뤄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한지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지 생산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전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투브르박물관이나 바티칸, 유네스코, 원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박물관과 미술관, 종교단체들과도 전주한지를 활용한 이러한 협력 사업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 전주시 비정규직 150여명 정규직 전환

### 내달쯤 전환 절차 마무리

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1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0세까지 고용이 보장,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분청과 완산·덕진구청,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91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150여 명을 결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이달 중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 라인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8월 31일 교수와 변호사, 노동 연구단체, 노조 대표, 공무원 등 9명의 위원으로 전주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전환 원칙을 정립했다.

특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시에 직접 고용된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상시·지속적 업무 중심으로 전환 대상자를 선정했다. 단, 이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출산·육아 대체인력, 전환 비희망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억울하게 전환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환 대상자 결정 후 7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들에 대한 인터뷰 및 부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의신청자들의 전환여부는 이달 말 재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향후 전환 대상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을 통해 결격 사유 유무, 자격·면허 조화를 마치고 전환자의 임금 및 처우에 관해 전환심의위원회의 의의를 거쳐 3월경에 정규직 전환 절차를 최종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통해 기간제 채용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 관련기사 4면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